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박미정, 오두남

호서대학교 간호학과/기초과학연구소

Mijeong Park(mijeong@hoseo.edu), Doonam Oh(doonoh@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6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 C와 S시에 소재한 2곳의 대학에 재학 중인 22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기술은 점수가능범위 1~5점 중 2.1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과 여가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및 여가활동 여부의 설명력은 26.7%였으며, 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18.4%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성별, 학업 성취도,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 및 여가활동 여부의 설명력은 33.0%였으며, 의사소통 기술은 주관적 행복감을 0.3%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만족도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의사소통 관련 교육이 주요 중재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대학생 | 의사소통 | 대인관계 | 행복 |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s of college students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222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located in C and S cities between June 1 and June 10, 2016, and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ommunication skills of the subjects were found to be 2.13 out of 1~5 point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perceived home economy level, and leisure activities. Second, communication skill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Third, in relation to interpersonal satisfaction, the explanatory power of sex, grade,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family economic level and leisure activity was 26.7%, and communication skills further explained 18.4%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Fourth, in relation to subjective happiness, the explanatory power of subjective gender,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family economic level and leisure activity was 33.0%, and communication skills further explained only 0.3% of subjective happi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mmunication-related education can be used as a major intervention strategy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improve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 keyword : | College Student |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Happines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상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에는 자아정체성을 바탕으로 성숙한 자아개념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자아정체성 형성이 대학진학 이후로 미루어져, 대학생 시기에 갑작스러운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2]. 대학생 시기에 자아정체성이 강화되어야 다음단계로 성장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나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3].

행복에 대한 개념이나 태도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연령대에 따라라도 차이를 보인다[4].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감은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삶에서의 만족감을 경험할 때를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등과 같이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5][6]. 한편 행복감은 삶의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과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7]. 즉 행복감은 주어지는 외적요인보다는 학습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내적요인이며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주요하고 필수적인 긍정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3].

대인관계는 전 생애 모든 단계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대학생 시기에서는 발달단계적으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8].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는 이전 청소년 시기와는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대인관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각자가 경험해온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은 혼란을 느끼게 되며 대학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9]. 대학생 실태조사 결과 대학생활 시 대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학업 다음으로 대인관계로 나타났다[10].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는 심리적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취업이나 졸업이후 사회생활에 까지도 그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11].

의사소통은 대학에서 효율적인 학습과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동시에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없는 활동이다[12]. 의사소통기술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13],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상대방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인관계 갈등은 나아가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결여 및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14]. 또한 대인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여 어떻게 그 사람을 지각하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심리지향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15],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된다[16]. 즉 대인관계는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대학생 시기에는 대인관계 적응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이 요구된다[17].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 대상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며[11], 국내 직장인 대상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이 편안한 대인관계를 통해 높은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8].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대인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편안한 관계를 맺거나 긍정적 감성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19], 대학생 대상의 일부 연구들에

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결과나 다양한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결과가 있기는 하였으나[20-22], 대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사회적 기술 중에서 공감적 표현 향상을 통해 대인관계 만족은 물론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23], 역시 의사소통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대학시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8],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국내의 대학생 전체를 표집모집단으로 하고, C시, S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들을 편의표출 하였다. 표본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9 프로그램[2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95% 검정력 수준에서 예측요인의 수 8,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중간(0.15)을 선정하였을 때 최소 160명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 대상자 222명은 분석에 적합하다.

3. 연구 도구

3.1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은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허선영[25]의 의사소통 측정도구 20문항을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상호작용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 9문항과 상호작용에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이 중 역기능적 의사소통 11문항의 경우 결과 값 해석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그 값을 역환산한 후 기능적 의사소통이라 재 명명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점수 가능 범위=1~5점),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기술의 정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허선영[25]의 연구에서는 20문항의 의사소통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였으며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각각 .71,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었으며 일반적 개방적 의사소통의과 기능적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각각 .71, .70이었다.

3.2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는 부모, 친구, 교사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기대하는 요구 수준이 얼마만큼 충족되는지에 따른 개인의 만족감을 나타낸다[26].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대인관계만족도, 부모와의 대인관계만족도, 교수와의 대인관계만족도,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를 하위영역으로 하는 안상원[26]의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인 대인관계만족도 척도 26문항 중, 2인의 정신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일반적 대인관계만족도 5문항과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 7문항의 12문항만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점수 가능범위=1~5점). 안상원[26]의 연구에서는 26문항의 대인관계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으며 일반적 대인관계만족도와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의 신뢰도는 각각 .81, .74였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였으며 일반적 대인관계만족도와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의 신뢰도는 각각 .81, .71이었다.

3.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행복해 하는지를 주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5].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5점 Likert 척도의 1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주관적 행복감 측정 문항은 2인의 정신간호학 교수로부터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받고 자료 수집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점수 가능범위=1~5점).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대상자의 동의와 해당 학교의 학생담당 부서장, 학생대표 허락 하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 필요로 되는 표본 수는 최소 160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설문 응답으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예상 탈락률 30%를 고려하여 각 대학마다 120부씩 총 240부의 설문지가 확보될 때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 및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각 대학마다 학생회관을 출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연구참여를 희망한 자들은 학생회관 내 마련된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표식이 없는 봉투에 직접 밀봉하여 연구보조원에게 설문지를 제출하게 하였다. 설문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설문지 작성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240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222(92.5%)부 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Two-tailed, Significance $p<.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은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N=222)

특성	구분	n (%)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M	104 (46.8)	2.07±0.33	-3.75 (.054)	2.41±0.20	-11.34 (.001)	3.26±0.97	9.41 (.002)
	F	118 (53.2)	2.18±0.45		2.60±0.54		2.90±0.79	
학년	1 ^a	63 (28.4)	1.99±0.27	32.74 (<.001) a,b,c(d)	2.41±0.16	94.99 (<.001) a,b,c(d)	2.97±1.03	0.91 (.436)
	2 ^b	51 (23.0)	2.11±0.33		2.45±0.19		3.06±0.79	
	3 ^c	77 (34.7)	2.03±0.31		2.32±0.18		3.19±0.87	
	4 ^d	31 (14.0)	2.67±0.49		3.29±0.61		2.97±0.80	
종교	있음	161 (49.5)	2.17±0.45	2.00 (.158)	2.56±0.49	2.31 (.130)	3.10±0.89	0.32 (.572)
	없음	164 (50.5)	2.09±0.35		2.47±0.35		3.03±0.90	
학업성취도	만족 ^a	28 (12.6)	2.11±0.41	1.83 (.163)	2.44±0.30	3.86 (.023)	2.51±0.69	18.57 (<.001)
	보통 ^b	139 (62.6)	2.10±0.38		2.47±0.38		3.19±0.91	
	불만족 ^c	55 (24.8)	2.22±0.44		2.65±0.55		3.54±0.64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높음 ^a	58 (26.1)	2.30±0.44	8.35 (<.001)	2.67±0.56	5.29 (.006)	3.57±0.92	15.03 (<.001)
	보통 ^b	112 (50.5)	2.09±0.38		2.47±0.36		2.96±0.83	
	낮음 ^c	52 (23.4)	2.02±0.35		2.44±0.34		2.75±0.76	
여가활동 여부	예	111 (50.0)	2.23±0.45	13.36 (<.001)	2.61±0.50	11.38 (.001)	3.44±0.82	47.10 (<.001)
	아니오	111 (50.0)	2.03±0.32		2.42±0.31		2.69±0.81	

표 2.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수준

(N=222)

변수	M±SD	최소값-최대값
의사소통 기술	2.13±0.40	1.47-3.26
개방적 의사소통	2.23±0.63	1.22-1.44
기능적 의사소통	1.93±0.23	1.55-3.00
대인관계 만족도	2.51±0.42	1.87-4.51
일반관계	2.06±0.57	1.40-4.60
친구관계	2.97±0.37	2.14-4.43
주관적 행복감	3.07±0.89	1.00-5.00

관계만족도는 2.51점, 주관적 행복감은 3.07점이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영역은 개방적 의사소통 2.23점, 기능적 의사소통 1.93점의 순으로,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영역은 친구와의 관계 2.97점, 일반적 관계 2.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의사소통 기술의 경우, 성별, 종교 여부,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학년(F=32.74, p<.001),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F=8.35, p<.001), 여가활동 여부(t=13.36,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후검정 결과 4학년 그룹이 2.67점,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그룹이 2.30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대인관계 만족도의 종교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t=-11.34, p=.001), 학년(F=94.99, p<.001), 학업성취도(F=3.86, p=.023),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F=5.29, p=.006), 여가활동 여부(t=11.38,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4학년 그룹이 3.29점, 지각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222명 중 남학생이 46.8%, 여학생이 53.2%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년은 3학년 34.7%, 1학년 28.4%, 2학년 23.0%, 4학년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음이 49.5%, 없음이 50.5%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는 보통 62.6%, 불만족 24.8%, 만족 12.6%의 순으로,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은 보통 50.5%, 높음 26.1%, 낮음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하고 있음 50.0%, 하지 않고 있음 5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1].

2.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수준

점수가능범위 1~5점 중 의사소통 기술은 2.13점, 대인

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그룹이 2.67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학년, 종교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t=9.41, p=.002$), 학업성취도($F=18.57, p<.023$),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F=15.03, p<.001$), 여가활동 여부($t=47.10,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사후검정 결과 학업성취도가 보통인 그룹과 낮은 그룹이 각각 3.19점, 3.54점으로,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그룹이 3.57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4.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 만족도($r=.63, p<.001$), 대인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하위영역인 일반관계($r=.63, p<.001$) 및 친구와의 관계($r=.46, p<.001$),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r=.15, p=.024$)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영역인 개방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만족도($r=.66, p<.001$), 대인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하위영역인 일반관계($r=.69, p<.001$) 및 친구와의 관계($r=.4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영역인 기능적 의사소통은 대인관계 만족도($r=.39, p<.001$), 대인관계 만족도의 일반적 하위영역인 일반관계($r=.45, p<.001$) 및 친구와의 관계($r=.20, p=.00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N=222)

변수	의사소통 기술	개방적 의사소통	기능적 의사소통
	r (p)		
대인관계 만족도	.63 (.001)	.66 (.001)	.39 (.001)
일반관계	.63 (.001)	.69 (.001)	.45 (.001)
친구와의 관계	.46 (.001)	.45 (.001)	.20 (.002)
주관적 행복감	.15 (.024)	-.01 (.882)	-.07 (.285)

5.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오차항,

이상치 검사를 통해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1.34로 10이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 1.81~1.89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최대 Cook's Distance 0.04로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식의 기본 가정이 모두 충족되므로 [표 4]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대인관계 만족도의 경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 여가활동 여부가 투입된 모델 1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약 26.7%였으며($F=17.06, p<.001$), 성별($\beta=-.17, p=.005$), 학년($\beta=.34, p<.001$), 학업성취도($\beta=-.19, p=.002$),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beta=.15, p=.011$), 여가활동 여부($\beta=.20, p=.001$)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기술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2는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약 45.1%로 증가하여($F=31.08, p<.001$), 의사소통 기술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약 18.4%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델 2에서는 성별($\beta=-.13, p=.011$), 학년($\beta=.18, p=.001$), 학업성취도($\beta=-.17, p=.028$), 의사소통 기술($\beta=.49, p<.011$)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성별, 학업성취도,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 여가활동 여부가 투입된 모델 1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약 33.0%였으며($F=28.18, p<.001$), 성별($\beta=.18, p=.001$), 학업성취도($\beta=.29, p<.001$),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beta=.24, p<.001$), 여가활동 여부($\beta=.29, p<.001$)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기술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2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약 33.3%로 증가하여($F=23.12, p<.001$), 의사소통 기술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약 0.3%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델 2에서는 성별($\beta=.19, p=.001$), 학업성취도($\beta=.30, p<.001$), 의사소통 기술($\beta=.22, p<.001$), 여가활동 여부($\beta=.27, p<.001$)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표 4. 대인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의사소통 기술의 영향

(N=222)

		변수	B	SE	β	t	p	
대인관계 만족도	모델 1	(상수)	2.23	0.13		17.52	<.001	
		성별 [†]	-0.14	0.05	-.17	-2.83	.005	
		학년	0.14	0.02	.34	5.75	<.001	
		학업성취도	-0.13	0.04	-.19	-3.14	.002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0.09	0.04	.15	2.58	.011	
		여가활동 여부 [‡]	0.17	0.05	.20	3.22	.001	
		Adj R ² =.267, F=17.06, p<.001						
	모델 2	(상수)	1.33	0.15		8.70	<.001	
		성별 [†]	-0.11	0.04	-.13	-2.56	.011	
		학년	0.07	0.02	.18	3.22	.001	
		학업성취도	-0.08	0.04	-.17	-2.21	.028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0.03	0.03	.06	1.06	.290	
		여가활동 여부 [‡]	0.08	0.05	.10	1.80	.073	
		의사소통 기술	0.52	0.06	.49	8.53	<.001	
Adj R ² =.451, F=31.08, p<.001								
주관적 행복감	모델 1	(상수)	1.25	0.21		5.83	<.001	
		성별 [†]	0.32	0.10	.18	3.26	.001	
		학업성취도	0.43	0.08	.29	5.10	<.001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0.30	0.07	.24	4.15	<.001	
		여가활동 여부 [‡]	0.51	0.10	.29	4.95	<.001	
		Adj R ² =.330, F=28.18, p<.001						
	모델 2	(상수)	0.85	0.35		2.45	.015	
		성별 [†]	0.34	0.10	.19	3.46	.001	
		학업성취도	0.45	0.09	.30	5.30	<.001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	0.28	0.07	.22	3.75	<.001	
		여가활동 여부 [‡]	0.48	0.11	.27	4.49	<.001	
		의사소통 기술	0.20	0.13	.09	1.49	.137	
		Adj R ² =.333, F=23.12, p<.001						

더미 변수: [†]여학생=0, 남학생=1; [‡]예=0, 아니오=1

IV. 논의

본 연구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기술과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간의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행복감 증진을 위한 중재 방안 제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의사소통기술은 5점 척도에 평균 2.13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개방적 의사소통 기술은 2.23점이었고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인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은 평균 1.93점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기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현숙 등[27]의 의사소통역량 3.94점, 문

새롬[28]의 의사소통능력 3.4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표집과정과 측정된 도구가 상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년, 경제수준 등 여러 일반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기술은 어떤 대학생이 표집 되었는지에 따라 상이한 점수를 보이고 있었고, 의사소통에 대해 실제적인 기술능력을 측정하느냐 의사소통역량의 인지정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기술의 하부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인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대학생의 시기에 대학생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의사소통기술은 어느 정도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기능적 의사소통기술은 아직 부족함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1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측정된 안상원[26]의 평균 3.78점보다 낮게 나타났

고, 다른 도구이지만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본 배순원[8]의 3.5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보이지 않은 것은 대인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없었음과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것이 아닌 이유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은 대학 시기에서 와서도 그 이전에 완성되지 못한 대인관계 문제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일반적 대인관계 만족도 점수 2.06점보다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점수가 2.97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과 달라진 대학생 시기의 인간관계의 질과 범위에 있어 특히 친구와의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깊어지면서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07점(100점 환산 61.4점)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측정한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학생의 행복수준을 측정한 조명주[2]의 100점 환산 점수 84.4점보다 낮았고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한 김정윤과 박현숙[29]의 100점 환산 점수 41.9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행복에 대한 개념은 문화에 따라 상이하고 대상자의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행복의 주요 개념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행복감은 외적요인보다는 내적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을 수 있다는 등 여러 이유를 고려 해 볼 때, 단순히 선행연구와의 행복감 점수만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더욱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여 유사 상황에서의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기술은 학년과 지각된 경제수준, 여가활동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학년이 1-3학년보다 유의하게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송민선 등[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4학년에 이러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임상실습을 비롯한 학습과정에서 습득되어진 대인관계나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영향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소통 기술에 어려움을 겪는 지

학년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스스로 습득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의사소통 훈련, 집단상담이나 글쓰기 등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각된 경제수준이나 여가활동여부가 의사소통 기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의사소통 기술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과의 관계유지에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파악한 것으로 본인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인지하고, 여가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는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지각된 경제수준, 여가활동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권진희[11]의 연구에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며, 대학시기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는 이러한 능력이 높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유현숙 등[27]의 연구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여가는 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욱 높아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여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해석을 보여주었다. 4학년이 1-3학년보다 유의하게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한 대인관계의 범위의 확장과 관계형성 관리에 대한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성별, 학업성취도, 경제수준, 여가활동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의 행복 수준을 비교한 조명주[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행복요인을 조사한 일부 선행연구[6][30]에서는 남학생

과 여학생과의 행복감에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일반대 학생과 간호대학생과의 차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의 특성이 배제된 일반 대학생이 연구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가 남학생에게서 높음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 외에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 기술은 대인관계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사이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들 [22][31]과 대학생들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좋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서 원만한 경향을 보인다는 송정애와 장정순[32]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의사소통 기술은 서로 맺어진 대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연결시켜주는 상호작용의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3]. 의사소통 기술의 하위영역별로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기능적 의사소통 각각은 대인관계만족도의 하위영역인 일반적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주지선[34]의 주장처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기술, 특히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에는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지각된 가족경제수준, 여가활동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6.7% 이었고, 가장 큰 예측요인은 학년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의사소통 기술이 투입된 경우 설명력이 45.1%로 증가하면서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의사소통 기술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이 중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기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적인 학습 효과가 누적되면서 대인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만족

도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시기 초기부터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기획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인관계 만족도와 연관성을 가지는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대한 기술적 훈련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심리나 대인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공감 능력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념을 투입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성별, 학업성취도, 지각된 가족경제 수준, 여가활동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33.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의사소통 기술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33.3%로 의사소통 기술의 추가적인 설명력은 약 0.3%정도 이었고, 성별, 학업성취도, 의사소통 기술, 여가활동 여부 등의 유의변수들 중 의사소통기술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큰 예측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는 의사소통 기술 자체보다는 학업적 성취와 같은 실제적인 일반적 특성이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대학생들은 진로나 취업의 준비에 있어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 및 학업만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의사소통능력보다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는 연구[35]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대학 생활에서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통한 학업만족에 기인한 주관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전공특성이나 전공적합여부 등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데[36], 본 연구에서는 전공관련 특성이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제한점으로 남게 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기술과 주관적 행복감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위해서는 전공관련 특성을 포함한 추후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며, 연구결과와 확대 해석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기술이 대인

관계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의 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향상 훈련의 필요성과 중재 방안 제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에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의사소통 기술이 주요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 만족도 증진을 위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저학년 시기부터 공감능력 함양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리라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이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예측요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 기술과 주관적 행복감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의사소통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은 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기술의 향상은 대인관계 만족을 매개로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체계적인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측정 도구의 개념과 관련특성 확인에 있어 제한점이 있으나, 대학생의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의 만족도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추후 대학생의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는 다양한 개념과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대학생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여 전공관련 특성과 같은 관련 영향 요인들을 모두 반영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1968.
- [2] 조명주,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82-190, 2016.
- [3] Y. K. Kim, “Developmen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through reframing family of origin emotional health,”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11, pp.35-60, 2009.
- [4] U. Kim, Y. S. Park, M. U. Kim, K. Lee, and H. S. Yu,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and life satisfaction: comparative analysis of adolescents, adults, an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5, No.1, pp.119-145, 2000.
- [5] S. Miller, “Definition of happiness: ‘I have what I consider the best job,’” *Managed Care*, Vol.25, No.11, p.23, 2016.
- [6] 이수정, 안신호,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관한 연구 개관,” *심리과학연구*, 제4권, pp.123-143, 2005.
- [7] D. W. Lee, *Happiness research on welfare policy implications; The 5th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 [8] 배순원,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9] 이민선, 채규만,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제12권, 제1호, pp.63-75, 2012.
- [10]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4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주요결과*,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pp.1-6, 2014.
- [11] 권진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제14권, 제1호, pp.37-49, 2011.
- [12] 송민선, 안효자, 정영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의료커뮤*

- 니케이션, 제5권, 제1호, pp.40-48, 2010.
- [13] S. Trenholm and A. Jens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6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14] 정계선, 김정아, 성지아,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13-422, 2013.
- [15]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hn Wiley & Son, 1964.
- [16] B. H. Spitzberg and W. R. Cupach,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Springer-Verlag, 1989.
- [17] 구자경,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와 치료적인 요인 지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 [18] 정경진, 최한나, “비폭력대화 모델에 기초한 집중형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능력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제32권, 제1호, pp.1-16, 2011.
- [19] 전정미, 유미숙,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제27권, 제3호, pp.225-240, 2006.
- [20] 김말선, “의사소통훈련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교정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79-101, 2016.
- [21] 정추영, 서영숙, “융복합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5호, pp.271-280, 2017.
- [22] 이현석, 최은희, 황미영,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갈등해소양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2호, pp.1-22, 2009.
- [23] 김여흠, 이윤주,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불안, 공감, 사회적 기술, 분노표현양식, 대인관계만족에 대한 구조모방정식 모델 검증,” 상담학연구, 제14권, 제3호, pp.1587-1604, 2013.
- [2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2007.
- [25] 허선영, *초등 영재의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6] 안상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27]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과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요인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4호, pp.319-337, 2011.
- [28] 문새롬,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9] 김정운, 박현숙,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관련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7권, 제1호, pp.545-559, 2015.
- [30] 남문희, 이미련, “간호대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0호, pp.363-374, 2014.
- [31] 최순이, *영화치료를 적용한 의사소통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2] 송정애, 장정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119-144, 2010.
- [33] J. A. Devito,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ook*(10th ed.), Person Education, 2004.
- [34] 주지선,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

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5] Y. N. Ko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achievement, career decision, and learning styl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13, No.3, pp.215-234, 2005.

[36] 박현숙, 권복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48-56, 2006.

저 자 소 개

박 미 정(Mijeong Park)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방법, 아동건강

오 두 남(Doonam Oh)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 노인간호